

간호대학생의 전공 융합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

문원희¹, 김영주^{2*}

¹배재대학교 간호학과, ²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Weon-Hee Moon¹, Young-Ju Kim^{2*}

¹Dept. of Nursing Science, Pai Chai University

²Dept. of Nursing Science,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견해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은 연수 후 경험으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자아성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고 예전 삶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후에는 반드시 추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열망, 동기, 자신감 등을 강화·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개인 성향에 따른 맞춤형 추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추후 프로그램 운영 시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추후 시점마다 심리적 또는 교육적 지지자원을 분배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 해외 단기연수, 대학생, 경험, 근거이론방법, 질적 연구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in a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and to present the future direction of short-term study abroad. Method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nd method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ajor in a major converged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 Results: The core category emerged as 'finding myself in another me'. 'as experience the difference' emerged as a causal condition.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provide students with these effects: 'a change of attitude on life', 'find continued support resources', 'due to hard reality, putting down the aspiration'. Shown in thes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students were seen to have the simultaneous effect of 'to live as the organizers of life', and 'return to the old life'. Conclusions: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a positive impact on their attitude towards life.

• **Key Words** : Short-term Study Abroad, College Students, Experience, Grounded Theory, Qualitative Study

*교신저자 : 김영주(yjkim@hit.ac.kr)

접수일 2014년 12월 30일

수정일 2015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5년 4월 20일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맞물려 각 대학들은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1]. 해외 우수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질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들의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 교환학생 및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보건의계열 대학들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닌 전공과 융합하여 실습과 어학연수를 겸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공 관련하여 선진국의 실습현장을 경험하고 해외 실습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2].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그 내용과 진행 정도가 다양하여 객관화시켜 어떤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학생들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기 안의 변화를 체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1,3].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보고된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영어교육과 학습에 대한 효과분석의 객관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연수경험 그 자체나 연수 후 대학생활 및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많은 대학교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해외 단기연수를 빈번하게 보내고 있으나 질 높은 연수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학생 지지 등 해외 단기연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초자료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얻는 연구는 해외 단기연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축적하여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가 할 방향을 조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견해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에 참가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 향후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견해에 바탕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고, 해외 단기연수가 나아가 할 방향을 조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간호대학생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근거이론방법

근거이론 방법은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는 귀납의 논리에 의한 연구 방법이다 [4]. 즉 양적연구에서와 같이 이론과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있는 개념들의 관계를 통하여 이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근거이론 방법은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에 이론적 배경을 둔 것으로[5] 이는 인간의 행위와 상호행위 과정 혹은 의미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데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2.2 대학생의 해외연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한 해외연수의 양적인 증가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해외연수와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 후 학생관리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현재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보자료실에서도 매년 해외유학생 현황은 있으나 단기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과 같은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영어해외연수가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6,7], 영어학습에 미치는 지속적 효과에 관한 연구[8], 영어 동기 및 성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9,10] 등 주로 영어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객관적 연구들이 대부분 있었고, 해외 단기연수 및 해외 연수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한 연구나 연수 경험 후의 대학생활 및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몇 편[1,11]에 불과하였다.

박[1]은 한국 대학생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한국 사

회 문화 재인식과 세계 속 자아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Deirdref[3]는 미국 대학생들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을 자기확신, 성숙, 다른 가치관에 대한 수용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Meleis[12]에 의하면 사람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였을 때 전환(transition)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의 전환 경험은 개인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특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였다. 이러한 Meleis[12]의 가정에 의한다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지금까지 선행된 국내·외 해외 단기연수 경험과는 또 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각 개인의 전환 경험은 문화와 가치관 및 사회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Strauss와 Corbin[4]의 방법을 사용하여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도출하는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3.2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들은 D대학교의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지원한 간호학과 학생 중 학교 성적과 토익 성적이 우수하여 선정된 8명의 학생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지도교수로 해외연수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연수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인 2012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3차례씩의 심층면담을 통해 실시되었다. 면담소요시간은 40분에서 2시간 30분이었고, 평균 면담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

1차면담은 참여자 8명 전원이 함께 모여 전반적인 연수경험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2차면담은 1차면담에서 나온 경험 중 의미 있는 자료에 대해 2~3번에 걸쳐 개인별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미

있는 자료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조적인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면담은 1, 2차 자료들을 분석하여 도출된 이론의 검증을 위해 연구 참여자 1인을 선정하여 1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3.4 연구참여자의 보호

면담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자세한 연구 과정 및 참여자에게 기대되는 이익과 불편감, 연구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 동의를 거쳐 연구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비밀은 보장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름이 아닌 인식코드를 사용하고, 연구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면담 시 녹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자가 연구 동의서에 사인을 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녹음된 내용은 연구가 끝난 후 모두 폐기될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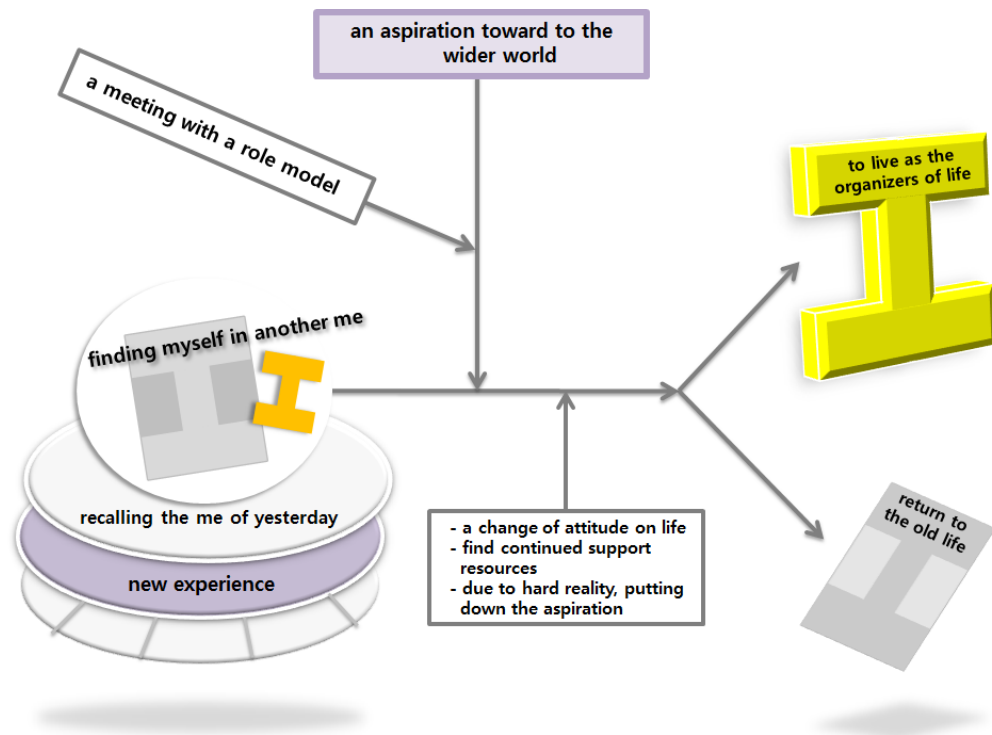
3.5 자료의 분석과 타당성 확보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4]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개방코딩, 연결코딩, 선택코딩 단계로 이루어졌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Guba와 Lincoln[13]이 질적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준거를 따랐다.

4. 연구결과

4.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들 중 1명이 남학생이었고 나머지 7명은 여학생이었으며, 연령은 19세 1명, 20세 4명, 24세 2명, 25세 1명으로 평균 21.5세였다. 참여자 중 5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명은 3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1명은 3년제 대학 식품영양과를 졸업한 후 입학하였으며, 1명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복무 후 본교에 입학하였다. 참여자 8명 모두 해외 연수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Fig. 1] Process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short-term study abroad (I-model)

4.2 구조에 의한 통합적 범주 분석

간호대학생의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다름을 경험함'이었고, 중심현상은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어제의 나를 돌아봄'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role model 형성',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생김'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삶에 대한 태도 변화', '지속적 지지자원 찾기',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음'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자아성숙', '예전 삶으로의 회귀'로 이어졌다[Fig. 1].

4.2.1 인과적 조건 : 다름을 경험함

8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에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설레임과 영어 구사능력의 증진 및 문화 체험에 대한 바람, 그리고 보다 넓은 세상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찾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을 안고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미국 L 대학과 연결된 홈스테이 가정과 대학 강의실, 캠퍼스 등 낯선 곳에서 한 달여간의 생활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경험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소소한 일련의 생활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가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기 스스로를 믿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어리다고 해서 제 생각까지 어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하면 수용하려 하고 완전히 성인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구요. 저만의 다른 생각도 존중해주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사례 1, 면담자료)

“학교 관계자분들이 저희 말을 잘 수용해주려고 노력하시고 우리가 이런 걸 원했다하면 바로 다음날 고쳐저

있고 이런 것에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사례 6, 면담자료)

“미국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대우가 좋다고 느꼈어요. 침대 옆에서 허리를 굽히는 걸 그 쪽 교수님이 보시고 ‘이 걸 올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너를 불편하게 하나?’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몸을 희생시키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면서 봉사한다는 인식...”(사례 6, 면담자료)

“다들 이른 시간에 귀가하고 집에 있더라구요. 한국은 바깥에서 모임이 많다면 미국은 집안에서 가족끼리 모이고...”(사례 7, 면담자료)

4.2.2 맥락적 조건 : 어제의 ‘나’ 를 돌아봄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연수 이전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 삶의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목적의식도 불분명 한 채 무미건조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간이 가는대로 흘러가듯 살아왔다고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미래도 대부분의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그래왔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종합병원으로 취직한 다음 결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한 삶인 듯 여겨왔음을 느끼게 되었다.

“왜 내가 간호학과를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왔는데 대면식, 나이팅게일 선서 연습, 체육대회 연습... 도대체 여길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살았어요...”(사례 1, 면담자료)

“저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은 없고.. 너무 공부에만 얽매어 살았던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알려주는 것만 하고.. 내가 너무 안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능력이후로 도전정신이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사례 1, 면담자료)

“미국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내가 간호학과 들어왔으니 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병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틀 안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코스대로.. 그냥 취업하고 2년 일해서 돈 벌어서 시집가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

요...”(사례 3, 면담자료)

한국의 권위적인 교육 안에서 수동적 교육에 길들여진 참여자들은 위축된 상태로 나 보다 타인의 생각에 지배되는 선택에 의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뭘 모를 때니까 저요! 저요! 막 이랬잖아요. 다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남이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내 말을 어짜피 수용하지 않을 텐데 예의 없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나서서 말하면 버릇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저 틀에 박힌 모습으로 발전도 없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1, 면담자료)

“교수님이 ‘이건 00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분명히 자기 생각을 말해보라는 건데, 언제나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까’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아 교수님 진짜 그런 것 좀 나한테 안 물어 봤으면 좋겠다’.. 질문을 던진 순간 긴장을 하는 거예요.”(사례 1, 면담자료)

4.2.3 현상 : 내 안의 또 다른 ‘나’ 를 발견

해외 단기연수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내재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막연한 자신감이 아닌 연수에서의 새롭고 다른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전공실습을 통해 막연하게 선택했던 간호사의 길에 대한 자긍심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전의 안주하고 타인에 의해 이끌림을 받던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 놓여 있던 나에서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의지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이나 나이, 사회적 통념에 의해 삶을 결정하던 것에서 자신의 의지와 목표에 의해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제 가능성 같은 걸 너무 조그맣게 봤다고 해야 하나.. 저도 많은 것을 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

고..”(사례 1, 면담자료)

“간호의 길이 엄청 많구나. 뭔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3, 면담자료)

“나도 할 수 있겠구나..”(사례 5, 면담자료)

“외국인이 말을 걸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도망가기 일쑤였는데 제가 먼저 외국인에게 길을 물어보고 제가 먼저 다가가 질문하는 그런 제가 저도 새로웠던 것 같아요.”(사례 6, 면담자료)

4.2.4 중재적 조건(간접) ; Role model 형성

참여자들은 해외 단기연수 중 실습을 담당했던 중국인 외래 교수님을 role model로 여기게 되었다. 중국인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인간미를 좋아하게 되었고 참여자들과 같은 외국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중국인 교수의 간호학 공부 과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고 본받고 싶다고 여기게 되었다.

“미국 간호학과 학생들을 보면서 자기 과에 대한 자부심 있고 공부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방학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저도 제 학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사례 2, 면담자료)

“저희랑 같이 실습했던 교수님 보면서 많이 본받고 싶다고 느꼈어요. 그 교수님도 외국인 신분인데 거기서 직접 강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보도 많이 주셨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사례 3, 면담자료)

“실습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외국인이면서 일도 하시는걸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사례 6, 면담자료)

4.2.5 중재적 조건(직접) :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고자 하는 열망 생김

해외 단기연수가 끝난 후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NCLEX-RN을 취득 후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나타냈다. 연수 전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딴 후 학

교 성적이 좋으면 서울 쪽으로 취업을 하고, 성적이 보통이거나 좋지 않으면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겠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으나 연수를 다녀온 후부터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좁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의지가 굳건해졌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에 나와서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사례 2, 면담자료)

“문을 넓혀서 공부를 깊게 해야겠다고 그런 생각 다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CLEX-RN을 준비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사례 3, 면담자료)

“저 일단 졸업해서 학사를 하고 임상 2년을 하고, NCLEX-RN을 해서 영어도 같이 할 것이고 나중에 정말 한번 꼭 미국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사례 3, 면담자료)

4.2.6 작용/상호작용 전략

가. 삶에 대한 태도 변화

1) 영어공부에 박차를 가함

해외에 취업하고 싶은 강한 열망은 영어공부를 하는 동기화가 되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학교 언어교육원이나 사설 학원을 등록하였고, 온라인 영어수업을 듣기도 하였는데, 연수 전에는 토플 위주의 공부였다면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회화공부를 병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진짜 제일 큰 게 회화... 저도 그래서 일단 생각은 영어 공부 회화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4, 면담자료)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요, 영어영문과라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물어 보거든요. 외국 TV 프로그램을 봐도 귀를 쫑긋 세워서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예전보다 관심이 더 생겼어요.”(사례 4, 면담자료)

2) 삶의 목표 재설정

대학생활 중 좋은 성적을 유지하여 서울 쪽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참여자들은 선진화된 병원환경과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위상도 높은 미국으로의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면서 더 높은 삶의 목표로 재설정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가 너무 안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능력이후로 도전정신이 사그라들었는데 다시 뭔가 내 삶은 길고 할 수 있는게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 1, 면담자료)

“목표를 작게 갖지 말고 좀 더 넓은 곳에서.. 목표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사례 2, 면담자료)

“처음에는 ‘무조건 서울에 가서 일을 하자. 한국에서 거기가면 성공한 것 아니까’ 했는데 넓은데 가서 있어보니까 ‘꼭 거기만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사례 3, 면담자료)

3) 행복에 대한 감수성 증대

참여자들은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행복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현실에서 최대한 제가 행복 할 수 있음 행복하면 되는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제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1, 면담자료)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시고 돈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 많이 챙기시고 그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찾는 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이 그런데서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6, 면담자료)

나. 지속적 지지자원 찾기

참여자들은 해외 단기연수를 통해 느끼게 된 해외 취업에의 열망 및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화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NCLEX-RN을 취득한 선배와의 만남, 학교

로부터 해외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는다는지 또는 연수 다녀온 학생들과 모임 같은 것을 통해 자신들의 변화된 생각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았다.

“NCLEX-RN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조언 받을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시험 붙은 선배님들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어요.”(사례 2, 면담자료)

“지도 교수님이나 선배들과 이러한 것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선배님과 만나고 싶어요.”(사례 3, 면담자료)

“연수 다녀온 학생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해요.”(사례 3, 면담자료)

다.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음

해외 단기연수 후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정기간 동안은 지속되었으나 학기가 시작되면서 참여자들은 전공과목마다 시행하는 퀴즈, 리포트 및 시험을 거치며 다시 성적을 위한 학과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좋은 성적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해외취업을 위한 영어공부와 NCLEX-RN 취득을 위한 공부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연수 후 강하게 느꼈던 해외취업에 대한 열망을 다소 내려놓게 되었다.

“2학기 때 너무 영어에 좀 몰두를 했더니 성적이 과관이 아니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 했구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학과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1, 면담자료)

“학과 쪽지시험 이런 거 따라가다 보면 이런 거(영어 공부) 점점 소홀해지고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되요.”(사례 1, 면담자료)

4.3 결과

4.3.1 자아성숙

간호학과에 들어온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러하듯 참여

자들도 면허증을 취득하여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일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다녀온 후 참여자들은 짜여진 삶의 틀을 깨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면서 해외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나이대에 따라 요구받는 인생의 성취결과보다는 어떤 나이대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나도 다 가볼 수 있다.”(사례 2, 면담자료)

“틀 안에서 사회가 정해놓은 코스대로.. 그 전에는 그냥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니까 ‘아 아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너무 틀에 박혀 살지 말아야겠다. 주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3, 면담자료)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게 중요하구나. 이런걸 많이 느껴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사례 6, 면담자료)

4.3.2 예전 삶으로의 복귀

해외 단기연수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기준임을 인식하는 자아성숙이 이루어진 참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참여자는 바쁜 일상에 놓이면서 빨리 무언가를 끝내야 될 것 같은 예전의 조급함과 타인과의 비교,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이대에 정해진 인생의 성취에 다시 자신을 가두는 예전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말 그대로 가기 전에는 급박하게 과제를 한다거나 뭘 해도 빨리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갔다 와서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여유롭게 생활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렇게 조금 생활 했는데 뭐든 편하게 빨리빨리 안

하고 편하게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자 해서 생활 했는데 막상 학기 시작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요.”(사례 4, 면담자료)

5. 논의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으로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간호 대학생으로 살아가며 경험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낯설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박[1]의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단기 해외연수 경험은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한국에서 해 볼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름을 경험함’ 범주는 박[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초점을 나타낸 표현이라 하겠다. 참여자들은 미국 대학에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양방향 소통의 수업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교육현장과 다른 교육적 측면의 다름이라 할 수 있었다.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식의 양방향 소통을 경험한 연수 참여자들은 자신이 매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가장 큰 다름은 한국 사회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업과 관련된 기대수준에 맞춰진 미래 설계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에 나이 또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상관없이 도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다름은 Deirdre[3]가 표현한 미국 대학생들의 해외 단기연수로 받은 문화적 충격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문화적 충격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미국인의 모습에 있었다. 스스로가 정한 목표에 의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이를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진정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의 핵심범주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의 무미건조하고 사회나 타인의 기대요구에 내맡겼던 자신을 돌아본 후 잠재되어 있던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대학생들의 해외 단기연수경험의 결과와 일치한다[1,14,15]. 이러한 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개인적 성장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게 하였다. 표현은 다르지만 선행 연구에서도 같은 의미의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Cusher와 Mahon[16]의 ‘세계적인 마인드 형성’ 및 박[1]의 ‘또 다른 글로벌 이동을 욕망하거나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수 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증폭되면서 참여자들은 영어공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해외 취업으로 삶의 목표를 세설정하기도 하였다. 김[9]의 연수 이전에는 토익과 같은 시험 대비 혹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한 영어 공부가 연수이후에는 보다 넓은 세계를 접하고자 하는 동기로 변화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해외 단기연수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자기조절학습 능력 및 성취만족도, 영어사용에 대한 태도,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화, 자신감 등의 향상을 보고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 [6,7,8,10]이 해외 단기연수 후 참여자들의 영어공부에 대한 내적동기가 강화 되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학습자에게 외부에서 피드백이 제공되는 학습에 참여할 때 자기조절학습 활동이 촉진되어 보다 효율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는 보고[17]도 있지만, 내적동기부여가 된 학습자들이 외적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학습자들보다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18]도 있다. 따라서 연수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내적동기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자아 존중,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지 프로그램을 연수 후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수 후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지속적 지지자원을 찾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일부 참여자에서는 현실상황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기도 하였다. 김[8]은 해외연수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습자들은 연수 후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가 낮을수록 현실상황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는 부정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나타냈다.

부정적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원

인은 개인적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적 성향 및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직면하고 도전하는 유형과 수그러들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유형을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결과[19]가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해외 단기연수와 관련된 연구는 개인별 성격 유형에 따른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연구와 성격 유형에 따른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개인별 성향에 적합한 맞춤형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계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여자들은 해외 단기연수를 통해 자아성숙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Deirdref[3], 조[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예전 삶으로의 회귀를 나타냈기에 연수 후 지속적인 추후 지지 프로그램을 위한 개인 및 학교 차원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단기연수에서만 아니라 국내 대학생과 유학 온 원어민의 peer-tutoring 프로그램이나 혹은 정규 교육과정,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해외연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호간의 언어와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영어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질 높은 ‘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제 이론을 도출하여 해외 단기연수에 대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고, 향후 대학교에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추후관리에 있어 학생들의 연수 경험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단기연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은 연수경험 후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생기면서 삶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자아성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현실에 짓눌려 열망을 내려놓고 예전 삶으로의 회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공 융합한 해외 단기연수 경험에 대한 실체적 이론인 I-모형을 도출하였으며, 구조에 의한 통합적 범주 및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향후 해외 단기연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첫째, 문화와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다름’을 경험할 때, ‘다름’의 정도와 개인별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긍정적으로 변화된 가치관과 태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추후 관리에 있어 지지 자원의 투입 시기와 형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I-모형이 대학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검증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단기연수를 운영·관리하는 학교 측에서는 첫째, 참여자들에게 나타났던 자아 성숙의 결과가 교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름’을 통해 발휘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수 후 추후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된 열망, 동기, 자신감 등을 강화·유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참여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맞춤형 지지자원을 분배 투입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J. Park, “Reconsidering Korean culture and society and seeking self identity in the world: Short-term study abroad motivation and experiences”,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 18, No. 1, pp. 217-262, 2010.
- [2]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College Education, 2014-University College Global Field Practice Plan, Seoul, 2014. DIO ; http://www.kcce.or.kr/inform/inform_news.jsp?bn=9&pt=1&idx=23880
- [3] C. S. Deirdre, “When worlds collide: Evaluating the impact of short-term study abroad programs”, Ph.D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2009.
- [4] A. Strauss, et al.,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 Inc., Thousand Oaks, California, 1998.
- [5] M. S. Yi, “Overcoming Language Barrier by Korean Nurses in U.S. Hospital Setting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2, pp. 483-496, 1996.
- [6] S. O. Park, “An effective English study-abroad program- Based on a case study”,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 15, No. 1, pp. 163-189, 2003.
- [7] J. O. Joe, “Korean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in English camps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STEM Journal*, Vol. 6, No. 2, pp. 153-174, 2005.
- [8] B. K. Kim, “A study of the long-term effects of study abroad program on english learning”,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6.
- [9] S. Y. Kim, “The effects of the study abroad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learning English”,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6.
- [10] Y. S. Jung, et al., “The effects of short-term Language Learning abroad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the English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27, No. 2, pp. 329-347, 2011.
- [11] H. W. Lee, “Investigating Factors of Successful Overseas Internship Program for Nurturing Global Talent”, *HRD Research*, Vol. 13, No. 1, pp. 139-162, 2011.
- [12] A. I. Meleis, “Theoretical nursing: Development & progress”,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hiladelphia, Pennsylvania, 2007.
- [13] E. G. Guba, et al.,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San Francisco, California, 1981.
- [14] M. Toncar, et al., “The overseas internship experience”,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Vol. 22, No. 1, pp. 54-63, 2000.
- [15] J. M. Creamer, “Facing Japan Whi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Study Abroad Experiences and Expectations of Japanese Wome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2004.
- [16] K. Cusher, et al., “Overseas student teaching: Affecting personal, professional, and global

- competenci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6, No. 1, pp. 44-58, 2002.
- [17] Y. H. Kim. “Feedback’s Roles in Self-Regulated Learning”, Theses Collection. Vol. 34, pp. 109-126, 2008.
- [18] A. E. Gottfried,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7, No. 6, pp. 631-645, 1985.
- [19]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저자소개

문 원 희(Weon-Hee Moon)

[중신회원]



- 2001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2015년 3월 : 대전보건대학교 보건의료정보과 조교수

· 2015년 4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메타분석, 시뮬레이션 교육

김 영 주 (Young-Ju Kim)

[중신회원]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암환자, 삶의 질, 시뮬레이션 교육